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 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모가 난 것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대인이 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불을 밝혀 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감사하다 고맙다 하면서도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이 고마운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제 마음을 참 많이 밝게 해 준 한 계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숨쉬고 있는 제 자신까지도, 제 몸까지도 감사함을 그때 좀 느꼈습니다.

큰스님: 정말 감사하군요.

질문자1(남): 실은 이 감사함을 스님께 말씀드리고자 나왔는데, 아까 스님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안됐다 한다든가 좀 뭐한 것을 봤을 때 생각을 내서 마음을 돌려 주는 것과 생각이 나서 마음을 돌려 주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큰스님: 우리가요, 무슨 생각을 내기 이전에 벌써 뭐가 닥치면 그 닥치는 대로 자기가 그냥 보고 듣고 닥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지, 무슨 생각을 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래서 닥쳐왔으니까 '아, 이것을 어떡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난 거죠? 그냥. 생각이 났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오게 한 것도 너니까 해결하는 것도 너야.'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생각을 일부러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없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또 하지 마세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말을 할 땐 말을 해야 하는데, 일부러 지어서 마음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야 그것이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천 마디 하고도 한 마디도 한 사이가 없는 사람이 있고, 한 마디를 하고도 그냥 수없이 많은 말을 한 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분별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용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냥 거기다 돌려 놓고 지켜보는 그런 멋있는 멋쟁이가 돼야죠.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스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주 내려가서 저희 지원장 스님한테 꾸중 들을 폭 잡고 나온 김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림 · 최주현

큰스님: 하하, 괜찮아요.

질문자1(남): 다름이 아니오라 부처님 뜻과 우리 큰스님 원력과 지원에 계시는 저희 스님들 힘을 빌어 광주에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그것을 짓는 것도요, 불사를 하게 되는 것도 정신계로는 일체 만불(萬佛), 그 빈손들이 다 같이 더불어 해 주는 거고요, 산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내서 전부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다 만든 사람한테서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예요.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어느 회사가 양회를 했다 하면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벽돌을 했다 하면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나무를 켜서 말려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죠. 뭐 물, 불 다 들죠, 거기. 그러니까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없고,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혼자 한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대신에 너희도 나한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쪽에서 준 것도 없고 이쪽에서 한 것도 없으니, 없는 가운데 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천세계의 묘법이 광대무변하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왜 하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했죠. 몸뚱이 속에 많은 생명들이, 보살들이 들어 있는데 보살들이 부처님하고 더불어 같이 있어요. 부처님하고 보살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처님 마음에서 한생각을 내면 보살들이 되죠. 지장이 되고, 관세음이 되고, 아촉이 되고, 미륵이 되고 아미타가 되고, 그냥 한생각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자동적으로 수백억의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그 한마음 속에서 탄생을 해 가지고 그냥 모두 약사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그거는 부처님이 애써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자동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그 많은 생명들에게 한마음으로 항복을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질문자2(남): 질문이 몇 가지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스님: 한 가지씩 물어요.

질문자2(남): 네. 저희가 관법(觀法)을 하고 있는데 '한마음!' 하고 '한마음 주인공' 또 '마음의 선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이 귀신 망치야!' 이래도 그게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만 지극하게 했다면 '이 귀신 방귀씨야!' 이래도 되는 거죠. 허허허…. 사실은 그 이름이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먹는 뜻이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놈 저놈 한다고 해서 "아휴, 부처님더러 어쩌면 요놈, 저놈, 너, 이러느냐." 하는데 '너' 이러는 건 그냥 보통 말하듯이 '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중하게, 너무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도 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라고 그런 거지,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라고 그런 거지 둘로 본다면 모셔야죠. 지극하게 모셔야 되지만, 둘로 보지 않는 까닭에 너라고 하는 것이니 너무나 이게, 그건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재(豫修齋)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천도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주 법계의 일체제불 불보살님 등, 귀신까지도 전체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데, 그때의 예수재라는 거와 또 조상님 천도했을 때의 그 마음 천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큰스님: 예수재는요, 지금 우리 부모가 어디 먼데를 간다고 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사십시오.' 하고, 당장 가서 방을 얻고, 당장 가서 뭐 쓸 때 쓰고, 뭐 살 걸 사고 그래야 하니까, 또 뭐 사 잡숫고 싶은 거 사 잡숫고 이러라고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혼자 미국으로 보내 드린다면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고 사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얼른 쉽게 말해서. 노인네들이 금방 옷을 벗으면 혼이 벗어나서요, 지금 이런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죽어서도 감을 다 잡죠. 거기다가 감만 잡는 게 아니라 인도자까지 생기죠. 이끌어 주는 인도자가 생기는데, 보살들이 이끌어 주죠.

그런데 공부를 영 모르고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혼백이 그냥 아는 집으로 떠돌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 떠돌거나 그래서 '나는 저기 가야 할 텐데 배가 없어 못 가고 있다.' 고 하는 혼백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전에 얘기했죠. 빠져 죽을까 봐 못 가고 타 죽을까 봐 못 건너간다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기 때문이죠. 모습이 있으니까 타 죽고, 모습이 있으니까 빠져 죽고, 그렇게 살던 습이 있어서 죽었는데도 모습이 없이 의식적인 마음만 있다는 걸 모르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떠돌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떠돌다가 잘 걸리면 좋지만…, 영혼들이 원래는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가다가, 단속을 하고 그래 가지고서 이름을 불러서 개개인을 차원대로 보내 주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떠도는 혼백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26면으로 계속

당뇨. 비만 Diet

임 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제10기 (2010년도) 치악산 구룡사
원주불교대학 학생모집 요강

귀의 삼보하옵고,
귀하의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치악산 구룡사에서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는 부처님의 법과 자리 이타의 이념을 널리 홍보하여 재가 불자님들이 보살정신을 실천하고 불국정토를 이룩하고자 불교 대학을 개설하여 제10기 불교 대학생을 모집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과정 : 1개년 과정 (2010. 1. 9 ~ 2010. 12. 11)
2. 교육요일 : 주1회(매주 토요일 15:00 ~ 16:40) 100분간(2시간)
3. 법 사 진

법사명	과목	적요	법사명	과목	적요
정념스님	참선의생활화	월정사 주지	김응철박사	포교방법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적천스님	금강경	구룡사 주지, 학장	심효섭박사	불교문화	인천 가천박물관
해공스님	경전의이해	구룡사 총무	최봉수박사	불교교리	동국대학교 교수
송강스님	아함경	구룡사 교무	김경집박사	불교역사	동국대학교 교수

4. 모집인원 : 80명 선착순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소정양식) 1매
사 진 (3*4cm) 4매 교재대 ₩50,000원정(10기생만)
등 록 금 ₩250,000원정 (포교사고시 합격자 ₩200,000원정)
6. 원서접수 : 2009. 11. 1 ~ 2010. 1. 15
7. 특 전 : 포교사 고시 응시 자격 인정
8. 문 의 처 : 치악산 구룡사 TEL : (033) 732 - 4800
FAX : (033) 732 - 1211

불기 2009년 12 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치악산 구룡사 주지 원주 불교대학 학장 적천

새해맞이
141회 3000배 용맹정진

서울숲 법왕정사 새해맞이 3000배는
예쁜 마음으로 미소 짓고
또 웃고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궁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며 100% 성취된다.

■ 날 짜 : 2009년 12월 31일(목) 저녁 9시 ~
2010년 1월 1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
☞ 전철 : 2호선 뚝섬역 7번출구 우측으로 직진 150m 하나은행 5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숲 법당 (02)456-0035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